

말씀에 대한 '갈급함'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본국 사역 기간에 4 차례(작년 8월, 11월, 올해 2월, 5월) 온라인으로 카니누와 번역자들과 만나 마태복음 전부와 요한계시록 절반의 초역을 점검하며 수정했습니다. 매번 점검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 온라인으로 점검하는 동안, 그리고 점검 마친 후 정리하기까지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본국 사역 기간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카니누와 종족의 성경 번역을 후원하는 교회를 방문하고, 동역자를 만나 사역 소식을 나눌 때마다 "어? 선교사님, 안식년 아니세요? 무슨 일이 그리 많아요?" 하는 질문을 종종 받았습니다. 본국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에 더해 번역 사역까지. 솔직히 조금은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고난 주간과 부활절 기간에 마을 교회에서 마태복음(카니누와 번역본) 말씀을 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셨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최종 점검 단계인 자문위원 점검도 아직 안 받은 미완성의 카니누와 번역본을 읽는다? 그것도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만큼 카니누와어로 번역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카니누와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있구나. 이 갈급함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도 번역자들도 힘들었지만, 온라인 점검을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마태복음 점검과 수정을 부활절 전에 마치게 하셨구나' 싶었습니다.



(고난주간 예배 중 마태복음 말씀을 읽는 모습)

이번에는 잭과 사이몬이 알로타우로 나왔습니다.

이달 초 두 주간에 걸쳐 요한계시록 말씀을 온라인으로 점검, 수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레비가 마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사이몬이 대신 나왔다고 합니다. 사이몬은 공식적인 번역 훈련을 받아 본 적은 없지만, 마을에서 번역된 말씀이 자연스러운지 점검할 때 성실하게 참여해 온 형제입니다. 잭, 레비와 함께 온라인으로 점검할 때보다는 속도 면에서 여러모로 느렸지만, 그래도 잭 혼자 아닌 사이몬이 곁에서 함께 해 주어서 이번에 계획했던 요한계시록 1~11장 초역을 잘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알로타우에 나와 있던 리넷도 이틀간 점검에 참여해 주어 두 형제와 저희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잭, 사이몬, 리넷)

'요한계시록'을 번역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이런 날이 오는구나.' 잠깐! 혹 오해하실 듯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마지막 책이라 "아~ 그럼 신약 번역이 끝났구나." 하실 듯싶어서요. 성경을 번역할 때 어느 책을 먼저 번역하느냐는 본문의 난이도와 사용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기에 종족마다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카니누와 종족의 경우, 신약에서는 복음서 중 분량이 가장 적은 마가복음을 먼저 번역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을 번역했고, 이어서 누가복음,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번역했습니다. 현재까지 신약의 61%가 초역이 끝난 상황입니다. (구약은 신약성경 이해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구약의 12% 정도를 번역했고 자문위원 점검까지 마쳤습니다.)

막연히 '요한계시록 번역은 어려울 거야. 어느 세월에 번역하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번역팀이 초역을 끝낸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 지금까지 번역한 책들보다 몇 배는 더 수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인즉,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이는 저희에게 그리고 카니누와 번역팀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당분간 요한계시록 말씀에 푹 빠져 지내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 감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책은 이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거나 공부한 적이 없었다며 요한계시록 번역이 속히 완성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카니누와 사람들과 함께 읽고, 말씀을 깊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흥분하면서 얘기하던지. 그날이 빨리 오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세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

요한계시록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쓰인 단어들입니다. 한국어로는 짧게 표현되는 단어가 카니누와어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어 써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12절 같은 구절이 그렇습니다. 한국어로 짧게 두 줄인 구절이 카니누와어 초역으로는 세 배가 넘게 길어졌네요. 아마도 카니누와어 번역이 끝나 신약성경을 출판하면 그 두께는 한국어 신구약 성경책 전체의 두께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원어와 일대일로 딱 맞는 카니누와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 때론 불가능해 보여서 어떻게 번역해야 하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번역을 해왔으면 익숙해지고, 속도가 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전히 번역이 오래 걸릴 듯 보입니다. 저희를 포함해 책, 레비 그리고 마을에서 번역된 말씀을 점검하는 데 동참하는 카니누와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카니누와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성경 전체의 번역이 끝나는 그날까지 카니누와 종족이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찌로다 아멘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12절)

Si bwaduwa: "Ika maisemoka! Kwaḡa yama Guyau kima ka sawasawadavadawiwa uḡuna kwaḡa o nakatamokeu keta kwaḡa o tonuwatasuyasuya. Kima ka viviagigikuwiwa keta ka vivimogumoguwiwa. Kwaḡa ya visime fifiwanisi keta kwaḡa Tofiwanaonaona. Kwaḡa fakwafakwa-vaḡasiu. Ika maisemoka!" (Visawavenena 7:12)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희는 7월 중순에 캐나다에서의 본국 사역을 마무리 짓고, 호주를 경유해 파푸아뉴기니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두 달 남짓 남은 기간 해야 할 일 들이 많은데, 파푸아뉴기니로 돌아가는 여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 마을 번역팀이 디모데전후서를 번역하고 있는데, 서로 협력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이해해서 번역할 수 있도록,
- 마을에 있는 저희 집이 낡아서 이번에 다시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 건축 자재인 통나무, 대나무와 코코넛 잎 등을 숲에서 구해와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재가 충분히 공급되고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법령들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가르치셨으니까요.
얼마나 술술 입 안으로 잘 들어가는지,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낫습니다.
(시편 119:102-103, 새한글성경)

(2021년에 출판된 젊은이를 위한 새한글성경에서 시편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이미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 66 권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들을 때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술술 입 안으로 잘 들어가는지 경험하는 기쁨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믿음의 식구들을 그리워하며
사랑 가득 담아 보냅니다.
2022년 5월 26일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 선교회
www.wycliffe.ca
전화: 1-403-250-5411 / 1-800-463-1143

Joseph & Joyce Park (본국사역 중-캐나다)
휴대전화: 1-825-365-9260
이메일: joseph-joyce_park@wycliffe.ca
카톡 id: kaninuwa2011